

가디언즈 월드(Guardians World)

시나리오

S#.01 가디언 본부 회의실 (낮)

더크스가 가디언 본부 회의실로 들어간다.

(카메라: 본부 회의실로 들어가는 더크스의 발을 비춘다.)

더크스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출은 처음인데, 도대체 무슨일이지?

(카메라: 연구팀장과 화면을 비춘다.)

연구팀장 더크스님도 오셨으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루니움이 창설된 이후로 쪽 균열과 카오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카오스가 많이 감지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마나로 이루어진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 이 섬입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몬스터들은 카오스의 영향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더크스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더크스와 연구팀장의 얼굴을 번갈아 비춘다.)

더크스 그래. 수고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카오스의 원인을 알 수 있겠어.

연구팀장 (좌우로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연구를 시작한 후 처음 발견한 이상 현상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을 찾기 위한 한 발자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크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오겠다.

연구팀장 부탁드립니다. 더크스님

하이드 (나지막히)...더크스

(카메라: 가장 상석에 있는 하이드의 뒷모습과 더크스를 같이 비춘다.)

더크스 (고개를 돌리며 하이드를 바라본다.) 예. 연합장님

하이드 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력이다. 만약 위험하다면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라도 돌아...

더크스 (하이드의 말을 자르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부하들 전원과 함께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하이드 (살짝 웃으며) 그래. 그런 남자였지. 너는.그래도 명심해라.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너와 부하들 모두.

더크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다녀오겠습니다.

(카메라 : 더크스가 나가는 모습을 비춘다.)

Fade out.

S#.02 동굴 내부 (어두컴컴함)

(카메라 : 동굴 내부에서 입구를 찍는다.)

조사단원들이 동굴 내부로 들어오며 마나의 힘으로 불을 밝힌다.

(순간 동굴 내부의 카오스가 더크스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카메라: 더크스의 얼굴 앞쪽으로 zoom인한다.)

더크스(걸다가 갑자기 멈춘다.)

세론 (더크스의 오른쪽으로 뛰어가며) 단장님!! 괜찮으니까!!

더크스 하...하하.. (눈에 초점을 잃고 실성한 듯 웃으며 머리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세론 단...단장님..??

더크스가 천장을 바라본 채로 조사단원들에게 카오스를 주입한다.

(카메라: 더크스의 시선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며 뒤쪽의 조사단원들을 비춘다.)

조사단원들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잡고 몸부림치며) 크아아악!!!!

(카메라: 다시 정면으로 와 더크스와 세론을 같이 비춘다.)

세론 (머리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한쪽 무릎을 꿇으며 더크스를 바라본다.)

단..장...님 이게 무슨.....

더크스 (고개를 돌려 세론을 바라보며) 세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세계가 나에게.. (언성을 살짝 높이며) 아니 우리에게!

(한 번 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거라.

(카메라: 세론의 얼굴을 비춘다.)

세론 크아아아악!!!!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떨군다.)

(잠시 후 고개를 들며) 아..아아... 이것이.....

세론이 눈이 까맣게 물들어 간다.

(카메라: 더크스와 세론을 번갈아 비춘다.)

더크스 그래.. 균열이 생긴 것도, 카오스가 흘러나온 것도 전부 우리가 원인이었어.....
그런 줄도 모르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다니.....

세론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더크스 세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론 다룬을 카오스로 물들여야 하겠군요. 허락해 주신다면 다루니움으로 돌아가 가디언들에게 카오스를 주입하겠습니다. 내분이 일어날 수 있게.

더크스 하하 역시. 세론.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어. 나는 다루니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얻은 힘을 나눠주겠다. (손을 뻗어 세론에게 카오스를 일부 넘겨준다.) 이걸로 가디언들을 카오스에 잠식시켜라.

세론 (카오스를 받으며 살짝 희열에 찬다.) 이것이 카오스의 힘...?! 감사합니다. 더크스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더크스 (고개를 끄덕인다.)

더크스가 동굴 입구로 걸어간다.

(카메라: 더크스를 따라 가다 동굴 입구에서 더크스의 얼굴을 비춘다.)

더크스 (카메라를 바라보며 독백) 내가 이 세계의 구원자다.

(카메라: 더크스의 정면에서 더크스가 나가는 것을 보여준 후 뒤쪽의 잠식된 조사단원들을 비추며 흔들린다.) 조사단원들 (더크스를 따라 걸어 나가며 저마다 중얼거린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

Fade out.

S#.03 정령들이 모여있는 아이더 (낮, 밝음)

(카메라: 크로노와 정령들을 비춘다.)

앉아서 지성이 있는 정령들과 이야기하던 크로노의 눈이 빛나며 행동을 멈춘다.

지성이 있는 크로노! 크로노!

정령 1 한동안 미래 관측을 못하시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지성이 있는 이번엔 눈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일을 관측하고 계시나 봐!

정령 2

(카메라: 크로노의 눈을 클로즈업한다.)

크로노의 눈동자에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크로노 (가쁜 숨을 몰아쉰다.) 허억..허억.

정령들 무슨일이야 크로노!

크로노 크룬을 만나야 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애들아 미안. 크룬이랑 얘기하고 알려줄게

(카메라: 크로노가 이동하는 모습을 비춘다.)

크로노가 헬레벌떡 어디론가 달려

간다. 정령들 크로노! 크로노!!

크로노는 마침 근처를 지나던 크룬을 발견하고 그를 부른다.

크로노 (다급하게) 크룬! 크룬!

크룬 무슨일인데 그렇게 헬레벌떡 달려 가는거야. 잘됐다. 지금 카오스가 아이더까지 침투하고 있어 나랑 같이 카오스를 막으러 가자!

크로노 (숨을 헐떡이며)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크룬 대체 뭔데 그래?! 말을 해봐

크로노 (숨을 고르며) 방금 미래를 봤어.

크룬 (화들짝 놀라며) 뭐? 요 몇 달간 소식도 없더니.. 무슨 내용이야?

크로노 나 가디언이 되어야 겠어.

크룬 그게 무슨 말이야?

크로노 가디언에게 도움을 줘야 될 거 같아! 가디언이 살아있어야만 다룬을 카오스로부터 지킬 수 있어.

크룬 진정하고 차분히 말해봐.

크로노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룬 그게 정말이야? 겨우 인간 따위가 카오스에 대적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크로노 그렇다니깐! 알잖아. 내가 본 미래는 반드시 일어나.

크룬 그건 알지만...

크로노 크룬. 아이더를 부탁해. 난 가디언에게 가봐야 겠어!

크로노의 몸이 빛나며 희미해진다.

크룬 크로노! 필요한게 있으면 말해! 나는 네 편이야

크로노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다.)

Fade out.

S#.04 나무가 우거진 숲, 네히우드 (밤, 한 줄기 달빛)

가디언들이 카오스에 잠식된 몬스터, 동료들과 싸운다.

(카메라: 에오스가 몬스터를 죽이는 모습을 비춘 후 에오스와 크로노를 번갈아 비춘다.)

에오스 (몬스터 한 마리를 죽이며) 으아아아.. 허억.... 허억.. (가쁜 숨을 몰아쉰다.) 크로노님! 예언의 인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제 더는 못 버팁니다!! 얼른 도망쳐야 합니다...

크로노 안돼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오늘이예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본 장면에서는 여기 에오스님과 가디언 분들은 죽지 않아요!

에오스 .. 알겠습니다.

(가디언들을 보며 크게 외친다.) 가디언 전원! 여기를 지켜내야 한다! 목숨을 바쳐라!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세계를 구할 수 있다.

가디언들 네! 에오스님 (저마다 무기를 꽉 쥐고 눈에 결의를 다진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쏘아져 내려오고 빛의 기둥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진다.

크로노 !!!!

가디언들 !

에오스 !!

빛의 기둥 가운데에 한 인간이 기절한 듯 누워있다.

(카메라: 플레이어의 1인칭 시점에서 눈을 깜빡이듯 점멸한다.)

크로노 이봐요! 정신차려보세요! 이봐요!

(플레이어) 으으으.... 뭐야... 내가 왜 여기에... 크흑...

에오스 이봐! 정신 차려!

(카메라: 플레이어의 1인칭 시점으로 Fade Out. 이 후 대화 소리만 들린다.)

플레이어는 큰 충격으로 다시 기절한다.

크로노 에오스! 이 사람을 데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에오스 예! 크로노님!

에오스가 플레이어를 들쳐 업는다.

(카메라: 약간의 진동을 줘 플레이어가 업히는 느낌을 준다.)

에오스 가디언 전원! 아크까지 후퇴하라!!

가디언들 예!

Fade Out.

S#.05 아크의 병실 (낮, 밝은 빛)

(플레이어) 으.... 으윽...

간호사 1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플레이어) (머리를 움켜쥜다.)

(마음속으로) '크윽..

여긴...?'

간호사 1 잠시만요. 가디언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잠시후 레이나가 들어온다.

레이나 마스터!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네요!

(플레이어) 여긴 어디인가요? 저는 왜 여기에 있죠? 대체 무슨 일...
(다시 머리를 움켜쥜다.) 크윽..

레이나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레이나가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한다.

(플레이어) 그러니까..... 제가 이 다룬이라는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전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걸요.....

레이나 걱정마세요! 제가 옆에서 기억을 찾는 것도 도와드릴 테니 함께 다룬을 지켜봐요!
우선, 퇴원 수속을 해야 하니까 마스터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플레이어) 아... 제 이름이요?

레이나 네! 혹시...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플레이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더나”입니다.

레이나 더나 마스터님! 그럼 천천히나가봐요.

더나와 레이나가 병실 밖으로 나간다.

Fade Out.

S#.06 아크 (낮, 밝은 빛)

레이나는 더나를 데리고 아크의 곳곳을 걸으며 아크를 소개한다.

레이나 여기 아크는 가디언분들의 기술과 마법을 결합하여 최신식 시설입니다. 더크스와 그림샤드들도 여기는 발견하지 못 할거예요!

더나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런 기술력으로도 그림샤드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건가요?

레이나 네..... 안타깝게도. 가디언들의 힘이 그림샤드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나봐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마스터께서 나타나셨으니까요!

더나 사실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마나를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힘도 강하지 않은 걸요..
제 스스로도 믿지 못하겠는데 레이나님은 저를 어떻게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가요...?

레이나 크로노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더나 크로노님이요?

레이나 네! 크로노님은 시간의 가디언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예요.
크로노님은 시간의 흐름을 담당하시던 상위 정령이셔서 미래를 관측하곤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여태껏 크로노님이 관측한 미래는 100% 현실이 되었다고 해요.

더나 아무때나 미래를 관측하시는건 아닌가봐요? 더크스가 카오스에 잠식되어 다룬을 파괴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레이나 맞아요.. 아무리 크로노님이라고 하셔도 언제 어디서 미래를 관측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크로노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의도하고 관측하는 것이 아닌, 세계가 선심을 쓰듯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스터의 경우에는 세계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닌 애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스터에게 희망을 걸게 되는 거예요

더나

레이나 자자 자세한건 크로노님께 들어보세요. 여기가 크로노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문을 두드리며) 크로노님! 마스터가 왔어요!

문이 열리며 크로노가 나온다.

크로노 오셨군요.

마스터

더나 안녕하세요. 더나라고 합니다.

크로노 후훗...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도 저는 시간의 상위 정령입니다).(
마스터에 관한 건 이미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세 명이 크로노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크로노는 자신이 본 것, 더나(플레이어)의 능력, 앞으로 미래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더나 (기쁜 듯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크로노 네! 다룬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죠! 게다가 저와 공간의 정령 크룬이 도와주면 그 능력들을 더 강화할 수 있을거예요! 하지만 크룬과 제가 지금 바로 도와드리지는 못해요! 마스터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면 마스터의 몸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많은 힘을 쓰는 일이라 시간이 필요해요. 우선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봐요! 마스터께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마스터를 다시 부를게요!

더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저도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크로노 레이나가 마스터가 적응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도와줘요.

레이나 제...제가요?

크로노 그럼요! 레이나 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나 ?? 크로노님 저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크로노가 레이나와 더나를 강제로 밀어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근다.

레이나 하.. 어쩔 수 없죠. 크로노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게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크로노님은 아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최대한 제가 아는 건 알려 드릴게요!

더나 네. 레이나님.

Fade Out

S#.07 아크의 훈련시설 (낮)

더나와 레이나가 훈련시설로 들어간다.

레이나 마스터! 여기가 가디언 훈련 시설이에요. 가디언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며 강해지고 있어요. 마스터가 도움을 주시면 가디언들이 더 빨리, 더 많이 강해질 수 있어요.

 마스터! 마음 속으로 여기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하운드를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더나 (마음 속으로 생각하자 눈 앞에 화면이 나타난다.) 오오! 이건가요?

레이나 네? 뭐가요?

더나 제 눈앞에 화면이 떠있어요. 여기에 가디언 강화, 진화 이런 게 써있어요

레이나 흠... 아무래도 마스터눈에만 보이는 건 가봐요. 하긴, 마스터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어찌 보면 당연하겠네요.

더나 아... 그런가봐요. 그럼 제가 한 번 눌러보...

그때, 갑자기 빛이 번쩍이더니 크로노가 크룬과 함께 나타난다.

크로노 마스터! 레이나! 잠시만요!

더나, 레이나 ?!

크로노 레이나! 미안해요 레이나에게 부담이 안가는 방법을 찾느라 늦었어요.

레이나 네? 뭐가요?

크로노와 크룬이 레이나에게 자신들이 정제한 힘을 나눠준다. 레이나의 머릿속으로 힘이 흘러들어간다.

레이나 어...어...?

크룬 (레이나를 바라보며) 미안하다. 네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찾았지만 이게 최선이였다.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더나를 바라보며) 흐음... 과연. 크로노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야. 미안하지만 다룬을 부탁한다. 이제 보니 확실히 알겠어. 너 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크룬은 그 말을 끝으로 사라진다.

크로나 레이나, 마스터 잘 부탁해. 나도 이만 가볼게!

레이나 마스터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아까처럼 가디언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나 네.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한다.)

그러자 더나와 레이나의 눈 앞에 화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화면에 레이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레이나 !! 이거군요! 이걸로 연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도 제가 필요하시면 화면 속 캐릭터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더나 오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상위 정령의 힘인가요?

레이나 그것도 그거지만, 마스터의 영향이 크죠. 마스터의 능력 중 하나가 눈 앞에 화면을 띄우고 그 화면을 주변에 보여주는 거예요!

더나 레이나님은 그걸 어떻게...?

레이나 아까 크로노님과 크룬님이 오셔서 저에게 넘겨주신 힘 때문인 것 같아요. 이래서 저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더나 레이나님도 특별한 뭔가가 있나봐요?

레이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로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정령이었고 어떠한 계기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요.

그러면 이제 가디언을 성장시켜봐요! 강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나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레이나 여기 원하는 가디언을 선택하고 결정을 넣어보세요. 마스터가 보유중인 결정이 자동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럼 아직도 달리고 있는 하운드를 성장시켜 보세요!

더나 (하운드에게 결정을 주는 생각을 한다.)

그러더니 하운드에게 결정이 흡수되고 화면에 표시된 레벨이 오른다.

레이나 좋아요!! 앞으로도 가디언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보세요!

다음은 새로운 가디언을 불러보아요! 시공간의 상위 정령분들이 가진 힘과 마스터의 힘을 합쳤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존재들도 가디언으로 소환할 수 있을거예요!

더나 ...!! 정말요?

레이나 네! 하지만 소환에 응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강력한 존재를 소환하기 위해 수십번의 도전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환에는 시공간의 결정이 소모돼요! 지금은 크로 노님이 주신 결정이 있으니 이걸로 소환을 한 번 해보아요! 소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나 (마음속으로 소환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눈 앞에 초채한 옷을 입은 한 검사가 나타난다.

로운 난 로운이라고 한다. 네가 나를 소환했군. 이 다룬을 지켜야 한다고? 마침 잘되었어. 내가 살던 세계는 시시켰거든.

레이나 소환에 응하는 존재는 차원을 넘어오면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일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스터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더나 (로운을 바라보며) 잘 부탁해요. 함께 다룬을 지켜봐요!

로운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면 불러라.

로운은 그대로 증발하듯 사라졌다.

더나 ?! 어디로 갔지?

레이나 이걸 크룬님께서 힘 써주셨나 보네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소환된 존재들이 지낼 수 있는 영지를 만들어 주신거 같아요! 아마 여기 하운드도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운드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나 (마음속으로 하운드를 영지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한다.)

하운드가 로운처럼 사라진다.

레이나 이제 이동시킨 영지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운과 하운드가 보일거예요!

더나 (마음속으로 가디언들이 이동한 공간을 바라본다고 생각한다.)

화면에 섬 같은 건물과 땅이 보이고 로운과 하운드의 모습이 보인다.

레이나 어느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한 번 가디언들과 함께 싸우러 가보실까요?

Fade Out.

S#.08 아크에서 조금 떨어진 울필드 (낮)

레이나와 더나가 광활한 초원이 있는 울필드에 도착한다.

레이나 마스터! 저기 토끼 몬스터들이 보이시나요? 마스터가 데리고 있는 가디언들을 불러내 저 몬스터를 공격해 보아요! 토끼라고 알아보시면 안 돼요! 카오스에 잠식되어 우리가 알던 토끼가 아닐 거예요!

더나 (가디언들을 불러내 토끼 2마리와 전투를 시작한다.)

레이나 가디언들은 공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격을 해요! 가디언들이 공격할 대상을 선택해 보세요!

더나 (대상을 선택한다)

더나가 선택한 대상을 향해 가디언들이 공격을 한다.

토끼 두 마리를 잡고 앞으로 걸으니 큰 토끼 한 마리와 작은 토끼 두 마리가 나타난다.

레이나 헉! 이번에 등장한 토끼는 엄청 크네요! 아마도 저 몬스터가 토끼 무리의 대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번 공격해 봐요! 아 참! 마스터는 가디언들이 어떤 스킬을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어 요. 로운과 하운드의 스킬을 사용해 대장 토끼를 공격해 보아요!

더나 (스킬을 선택한다.)

로운과 하운드는 더나가 선택한 스킬로 대장 토끼를 공격한다.

레이나 대장 토끼를 잡으니 토끼들이 도망갔어요! 앞으로도 대장이 보이면 대장을 먼저 공격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연습도 어느정도 해 봤으니 이제 아크로 되돌아가요.

더나는 로운과 하운드를 다시 영지로 돌려보내고 레이나와 함께 아크로 돌아간다.

Fade Out.
